

# 전기(Bίολ.)로서의 복음서 장르에 대한 논의와 평가

권 종 선  
<신약학 · 교수>  
jskwon@kbtus.ac.kr

## I. 서론

본 연구는 90년대 초반 리차드 버리지(Richard Burridge)가 제시하여 현재까지 복음서 장르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로마 βίολ.로서의 복음서 장르에 대한 견해와 이러한 견해에 수반되는 복음서의 독자 공동체 문제 또는 복음서 해석의 문제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1)</sup> 버리지는 복음서 장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장르비평 방법론을 설정하고 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는 그의 장르비평의 전제나 방법론, 내용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버리지의 장르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리차드 복컴(Richard Bauckham)은 복음서의 독자에 대한

---

1) Richard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새로운 주장을 제시했는데, 그는 복음서의 장르가 당시의 βίαι에 해당된다는 버리지의 견해에 근거해서 복음서의 기록이 특정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sup>2)</sup> 이처럼 βίαι로서 복음서 장르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장르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복음서의 성격, 기록 목적, 독자와도 연관되어 복음서 이해나 해석에 있어서 그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된다.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그 장르를 설정하는 일은 거의 언제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일이었다. 신약성서 정경의 처음에 등장하는 네 책이 신약 책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들과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며 또한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복음서의 장르 구분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음서는 네 개의 책으로서 모두 예수를 주된 인물로 서술하되 공통점과 함께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 복음서의 형성이나 그 역사나 그 성격을 파악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그 장르 설정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한 문학적 형태는 그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인식으로 용인되는 의미전달의 수단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와 함께, 복음서가 헬라어 사용 독자를 위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복음서 장르 연구는 주로 당시 그리스-로마의 문학형태들 속에서 그 유사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집중되었다. 버리지는 이러한 그리스-로마 문학형태 연구의 대표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 나름의 장르비평 방법을 통해서 복음서를 그리스-로마 문학형태 중 βίαι에 가장 가까운

2) Richard Bauckham, ed.,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장르라고 결론지었다.

버리지의 견해는 단순히 복음서의 장르 설정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관련된 중요한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버리지는 “장르는 복음서 저작과 그 이후 해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전형적인 기대들을 제공하도록 저자와 독자 간에 일치시키는 기능을 하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구조물”이라고 설명한다.<sup>3)</sup> 즉, 장르에 대한 이해는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up>4)</sup> 버리지는 당시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βίβλος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복음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던 특정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sup>5)</sup> 복감은 이러한 복음서 독자 문제에 집중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복음서의 독자는 특정한 공동체가 아닌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주장했다.<sup>6)</sup> 이와 같은 주장은 주로 특정 지역의 공동체를 독자로 설정하고 있었던 많은 학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고 이에 대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버리지의 장르 설정은 결국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선 복음서 장르에 대한 주요 견해들을 살펴보고, βίβλος로서의 복음서에 대한 입장을 버리지의 장르비평 방법론과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3) Richard A. Burridge, “About People, by People, for People: Gospel Genre and Audiences,”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ed.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131.

4) *Ibid.*, 113.

5) *Ibid.*, 144.

6) Richard Bauckham, “For Whom Were Gospels Written?”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ed.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9-48.

이와 관련된 복음서의 독자 문제를 복음서의 주장을 중심으로 논의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주장들의 한계를 밝히고 복음서 장르설정과 이와 관련된 복음서 독자에 관한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서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복음서 장르에 대한 논의들

복음서 장르에 대한 논의는 아마도 복음서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장르는 특별히 어느 정도 전형화 된 문학의 형태나 범주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는 시대에 따라 발전이나 분화하기도 하며 또한 때때로 상황에 따라 다른 삶의 자리나 기능을 지닐 수도 있다. 따라서 장르의 결정은 그것이 사용되었던 시대에 잘 위치시켜야 하며 그 삶의 자리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복음서는 1세기에 그리스-로마 세계의 독자를 대상으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자연스럽게 주로 당시의 그리스-로마의 문학유형들과 비교된다. 하지만 복음서를 구전 전승으로부터 문서화된 민간문학(folk literature)으로 이해하는 양식비평 학자들이나 복음서의 내용이나 강조점의 독특성에 집중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당시의 어떤 문학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것(sui generis)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복음서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형태에 있어서 구약이나 유대문헌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며 유사한 유대문헌으로부터 장르를 설정하려는 시도도 있다.

### 1. 그리스-로마의 전기

복음서의 장르를 그리스-로마 세계의 전기(biography)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견해이다. 복음서는 당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일종의 “회고”라고 분류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부들이나 저술가들에게서도 복음서를 “회고”로 언급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을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의 말씀이나 가르침만을 전하지 않고 많은 행동들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확히 “회고”라는 장르로 분류하기 힘들다.

복음서를 그리스-로마 “아레탈로지”(Aretalogy)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다. “아레탈로지”는 “기적”을 의미하는 헬라어 “ἀρεταί”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기적 이야기나 기적 이야기들의 모음으로서 주로 그러한 기적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신(神)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려고 사용된” 문학 형태를 의미하는데,<sup>7)</sup> “고대 전기물의 한 형태로서 도덕적 교훈의 근거로 사용되던 인상적인 교사의 괄목할만한 삶에 대한 공식적 설명”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sup>8)</sup> 예수의 많은 기적들이 포함되어 있는 복음서를 “아레탈로지”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20세기 초반부터 있어왔다. 특히 다미스(Damis)의 저술로 알려진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Apollonius of Tyana)에 대한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아레탈로지”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아폴로니우스의 생애』(Life of Apollonius)는 주후 3세기에 필로스트라투스(Philostratus)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서 다미스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다미스의 기억에서 왔다고 하는 부분도 그 역사성이나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한다.<sup>9)</sup> 또한 이러한 고대의 기적

7) Morton Smith, “Prolegomena to a Discussion of Aretalogies, Divine Men, the Gospels, and Jesu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90, no. 2 (1971): 176.

8) Richard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17.

9) Loveday Alexander, “What Is a Gospel?”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Gospels*,

이야기들은 문서로 현존하는 것들의 수가 적고 또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처럼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으며 연결 없이 나열되어 있어서 복음서를 정확히 이러한 문학 형태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내용으로 볼 때에도 아폴로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들에서는 신(神) 또는 신인(神人)의 죽음이나 순교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복음서와의 유사성이 반박된다.<sup>10)</sup>

“회고”나 “아레탈로지”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장르로 이해되기보다는 모두 “전기”(biography)라는 장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약학자로는 일찍이 19세기 말에 르낭(Ernest Renan, 1863)과 20세기 초에 보토(C. W. Votaw, 1915)가 복음서를 그리스-로마의 전기와 관련을 시켰다.<sup>11)</sup> 이들의 견해는 보다 철저하고 충분한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또한 단편적 구전 전승에 관심을 집중시킨 양식비평의 대두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복음서를 전기로 보는 견해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의 탄생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대부분의 복음서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복음서가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 예수 개인의 심리적 발전 등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종종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전기”라는 장르를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재에는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양식비평의 영향으로 약화되었던 복음서의 그리스-로마 “전기”와의

ed. Stephen C. Bar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7.

10) Howard C. Kee, “Aretalogy and Gosp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92, no. 3 (1973): 410.

11) 보다 자세한 논의는 Richard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4-6 참조.

연결은 1970년대에 들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버리지는 1992년에 『복음서란 무엇인가?』(*What Are the Gospels?*)라는 저술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장르비평 방법론을 수립하고 고대 전기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비교를 통해 복음서는 당시의 그리스-로마의 전기적 기록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시대의 “βίαι”(lives, 생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버리지는 이러한 고대 문서나 복음서의 장르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전기”(biograph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βίαι”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당시의 적절한 용어이며 또한 “전기”란 용어가 현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불러 올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다.<sup>12)</sup> 버리지는 모두 10개의 고대 전기들을 분석하여 복음서와 유사점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른 문헌에 대한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어느 것도 복음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다. 버리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며 자신이 언급하는 당시의 βίαι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하위 장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하나의 장르라기보다는 일종의 혼합된 유동적 장르였다고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다.<sup>13)</sup> 그는 이처럼 복음서를 보다 광의적인 유동적 장르로서의 고대적 의미의 전기(βίαι)로 설정함으로써 복음서 장르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헌들로부터 복음서의 장르를 결정하려는 시도들은 앞서 언급한 “회고”나 “아레탈로지” 이외에도 “역사”나 “소설” 등을 주목해 오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βίαι에 포함될 수

12) Ibid., 61-2.

13) Ibid., 65-9. 버리지가 말하는 유동적인 장르로서의 βίαι는 이런 면에서 당시의 역사, 찬양(encomium), 수사학, 도덕 철학, 이야기와 소설, 종교적 철학적 교훈, 대화와 담화, 변증 등과 일부 중복되기도 한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서는 버리지의 견해를 따른다면 어떻게 보든지 간에 βίολι에 포함되게 된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버리지의 견해를 받아들이며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당시의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고대 그리스-로마 전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4)</sup>

## 2. 기독교 고유의 설교

20세기 초·중반에 대두된 양식비평은 복음서 기록 이전의 구전 전승 시대의 단편적 구전 단위들과 그 삶의 자리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 복음서를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간 문학(folk literatur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양식비평에 있어서 복음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게 된 일종의 수집물이었다.<sup>15)</sup> 즉, 양식비평 학자들은 복음서를 한 저자에 의해 당시의 그리스-로마 문학 장르를 사용해서 일관되게 저술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고유의 장르로서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과 같은 학자는 복음서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

14) 대표적으로 Charles. H. Talbert, "Once Again: Gospel Genre," *Semeia*, 43 (1988): 53-73; Graham Stanton, *The Gospels and Jesu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38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John Fitzgerald, "The Ancient Lives of Aristotle and the Modern Debate about the Genre of the Gospels," *Restorian Quarterly*, vol. 36, no. 4 (1994): 209-21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기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복음서가 그리스-로마 전기의 하위 장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다소 다른 접근으로는 Richard S. Ascough, "Narrative Technique and Generic Designation: Crowd Scenes in Luke-Acts and in Charit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58, no. 1 (1996): 69-81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서술이 고대 그리스 소설과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전기, 역사, 소설 세 장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5) 양식비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권종선, 『신약성서 해석과 비평』(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259-78을 참조하라.



한 케뤼그마(kerygma)가 문학적 형태를 지니게 된 것으로 이해했다.<sup>16)</sup> 역시 양식비평 학자였던 칼 슈미트(Karl L. Schmidt)나 영국의 도드(C. H. Dodd)는 복음서를 주로 초대교회의 설교(preaching)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당시 그리스-로마 전기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했다. 즉, 이들은 주로 복음서의 구전(口傳) 성격을 강조하며 그러한 구전이 이야기(narrative) 형태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했으며 당시의 어떤 문학적 장르를 사용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은 복음서의 저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편집비평이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0년대에 들어 그리스-로마 “전기”로서의 복음서에 대한 견해가 다시 부각되어 현재까지도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복음서를 기독교의 독특한 문서로 이해하려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종종 지적되듯이 그리스-로마의 어떤 문서도 정확하게 복음서와 일치하지 않는데 특히 복음서의 내용이나 신학의 측면에서 볼 때에 복음서는 많은 독특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래리 험타도(Larry W. Hurtado)는 복음서와 당시 그리스-로마의 전기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서는 그 배경에 있어서 그리스-로마의 문학적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가 가졌던 종교적, 사회적 활동과 필요, 질문들에서 나온 것으로서 “종교적 성향을 가진 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전기 문학의 특징을 지닌 교회문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복음서의 내용, 주제들, 주요 모티프들 그리고 문학구조는 신앙적인 배경에서 온 것으로서 독특한 것으로 생각한다.<sup>17)</sup> 즉, 형

16) Rudolf Bultman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K. Grobel (London: SCM Press, 1952), 86.

17) Larry W. Hurtado, “복음서(장르),” 『예수 복음서 사전』, 377-82.

태적으로는 당시 문학의 틀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도 복음서 기록의 근본적 배경이나 주된 내용 등으로 볼 때에 그것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3. 유대 소설

복음서를 그리스-로마 전기와 비교할 때에 단순히 형식적 일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비교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몇몇 학자들은 복음서의 내용이나 사상이 주로 유대적이며 많은 구약적 사상과 인용이 나타나는 점을 주목하면서 복음서의 장르의 결정은 유대 문서들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톰 태처(Tom Thatcher) 역시 기존의 그리스-로마 전기와 복음서의 유사성을 찾으려는 연구가 복음서의 내용이나 역사관 등을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면서 복음서가 그 주제, 저자, 독자에 있어서 유대적 유산을 이어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래의 연구는 “복음서 장르와 가장 유사한 병행 장르를 교회를 태동케 한 그 동일한 유대적 배경 안에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sup>18)</sup>

이러한 요구에 맞게 마이클 바인즈(Michael E. Vines)는 그리스-로마의 전기에서 복음서 장르와의 유사성을 찾으려는 연구들의 방법론을 비판하며 러시아 언어철학자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이론을 사용하여 그리스-로마의 전기, 로맨스, 메니피안 풍자(Menippean satire)를 분석하여 그 “시공간”(時空間, chronotope)이 복음서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찾아내었다.<sup>19)</sup> 그는 다른 문헌들과의 형식적인 일치보

18) Tom Thatcher, “The Gospel Genre: What Are We After?” *Restorian Quarterly*, vol. 36, no. 3 (1994): 137-8.

19) Michael E. Vines, *The Problem of Markan Genre: The Gospel of Mark and the*

다는 이념적 또는 신학적 일치로 유사성을 찾아야 한다고 이해하며 특히 복음서의 묵시적이며 신학적인 특징을 주목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신학으로 하나님이 지상의 행동의 중심으로 개입하시는 이야기(narrative)로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sup>20)</sup> 이렇게 복음서의 단순한 외적 형태가 아닌 이념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고 그 “시공간”을 분석해 볼 때에 마가복음은, 물론 역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에스더, 수산나, 다니엘 1-6장과 같은 유대 소설과 동일한 장르로 볼 수 있다고 바인즈는 주장한다.<sup>21)</sup> 복음서를 기독교 고유의 장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또는 유대적 배경 하에서 이해하려는 노력 모두 단순히 외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복음서 장르를 결정하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리스-로마 전기와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나 신학을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유대적 배경에서 복음서의 장르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주로 구약성서, 미드라쉬, 랍비 전기 등에서 그 유사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복음서 장르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요 견해들 이외에도 복음서는 어떤 특정한 주요 장르가 아닌 유대와 이방의 “영웅 숭배”(hero cult)전승에서 나온 장르라는 혼합적 견해도 있지만,<sup>22)</sup>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로마의 βίολο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기독교 자체적인 또는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 장르를 설정하려는 시도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ewish Novel, Academia Biblica*, 3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143.

20) *Ibid.*, 155.

21) *Ibid.*, 153.

22) Lawrence M. Wills, *The Quest of the Historical Gospel: Mark, John, and the Origins of the Gospel Genre* (London: Routledge, 1997)는 이처럼 복음서 장르는 그리스-로마와 유대 모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며 마가복음을 “죽은 영웅 숭배 이야기”(cult narrative of the dead hero)라는 장르로 명명한다.

### III. Βίου로서의 복음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복음서 장르에 대해서는 그리스-로마의 βίου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견해의 중심에는 버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버리지는 특히 나름대로의 분명한 장르비평 방법론을 제시하며 당시의 여러 문헌들을 구체적으로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음서 장르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보였다. 이처럼 현대 βίου 연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저술 『복음서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복음서를 그리스-로마 βίου로 결론짓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은 곧 그리스-로마의 βίου로서의 복음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그의 연구를 살펴보자.

#### 1. Burridge의 복음서 장르비평

버리지는 우선 전기로서의 복음서 장르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과거의 연구들을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저서를 시작한다. 그는 이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복음서를 전기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곧 양식비평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견해가 반박되었으며, 다시 편집비평 학자들 이후에 복음서를 전기로 분류하는 주장들이 재개되었지만 이들의 연구들은 주로 장르 이론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나 고대의 전기물에 대한 충분치 못한 지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우선 “장르”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먼저 다루는데, 장르의 정의에 있어서 “Gattung”(독일어), “genre”(불어), “species,” “pattern,” “class,” “family resemblance” 등의 유사한 용어들을 제시 설명하며 장르의 수준(levels)이나 광역적(broad) 또는 본

질적(intrinsic) 장르, 양태(mode), 하위 장르(subgenre) 등의 종류를 제시함으로써 장르 이해의 난점과 장르의 광범위성을 강조한다.<sup>23)</sup> 또한 버리지는 장르는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 또는 혼합되는 “유동적인”(flexible) 것이라는 특징을 강조하며 따라서 장르는 그 당시의 작품들과의 문학적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sup>24)</sup> 그에게 있어서 장르는 “의미 소통의 체계”로서 그 장르가 있던 당시의 문학과 관계의 망(網, web) 안에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복음서의 장르도 독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당시 그리스-로마의 유사 문학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와 독자는 모두 당시의 의미 소통의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를 당시에 적합하게 올바르게 설정하는 일은 곧 복음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음미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처럼 버리지는 장르의 올바른 연구가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며, 복음서 장르의 적절한 위치로서 그리스-로마의 βίαι를 제시한다.

이처럼 버리지는 복음서를 그리스-로마 βίαι 장르에 위치시키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전기와 복음서를 비교해서 역시 복음서가 그리스-로마 βίαι의 하위 장르라는 것을 주장한 존 피츠제럴드(John Fitzgerald)의 연구가 내용이나 기능의 단순하고 간략한 비교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25)</sup> 이에 비해 본다면 버리지는 연구는 다른 어떤 장르 연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충실하게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적용을 제시하고

23) Richard A. Burri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38-43.

24) *Ibid.*, 49.

25) 앞서 언급한 바 있는 John Fitzgerald, “The Ancient Lives of Aristotle and the Modern Debate about the Genre of the Gospels,” 209-21.

있다. 일종의 의미소통 체계로서 장르가 저자와 독자 간의 공통된 기대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는 무(無)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독자적인 것일 수도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 버리지는 이러한 의미소통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공통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장르가 종류별로 특징들(features)을 지니고 있어서 동일한 형태(pattern)나 동종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26)</sup> 예를 들어, 구조, 형식, 범위,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나 주제, 가치관, 목적, 모티프, 내용구성 등과 같은 내적인 많은 요소들이 이러한 특징에 포함될 수 있는데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장르 특징들을 분류하거나 정리하거나 종합해 왔다. 버리지는 이러한 장르 특징을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sup>27)</sup> 첫째는 서두 특징(opening features)으로서 우선 문서의 제목은 문서에 붙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표지나 외면에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목은 그 문서의 장르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또한 시작하는 말, 서언이나 머리말은 장르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서신의 경우 어느 정도 공식화된 인사나 서두는 그것이 동일한 편지라는 장르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주체(subjects)로서 그 문서 전체에서 주된 동작주(動作主, agent)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 문서가 이야기일 경우는 주인공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문서가 강조하고 있는 주된 행동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버리지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이 택한 10개의 그리스-로마 βίαι와 복음서들에서 각각 동사를 찾

26) Richard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109.

27) *Ibid.*, 111-27.

아내어 그 동사의 주어(또는 무엇)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내어 그 통계를 백분율 수치로 나타내어 비교했다. 이러한 주체의 빈도(頻度)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어떤 요소가 그 문서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해당 분량을 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주체 확인의 방법에 해당한다. 셋째로, 외적 특징(external features)으로서 여기에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된다. 우선 제시 양식(mode of representation)을 들 수 있는데, 그 문서가 원래 구두로 읽혀지도록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기록문서로 읽혀지도록 고안된 것인지, 또는 대화형식을 띠고 있는지, 드라마처럼 각 인물들이 대사를 읽도록 된 것인지, 그저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제시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운율(韻律)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며 문서 전체의 분량도 확인대상이다. 버리지에 의하면 역사물과 같은 경우는 장편 장르에 속하며 βίου와 같은 경우는 중편 장르에 속한다.<sup>28)</sup> 또한 그것이 논리적, 주제별, 지역별, 연대기적 구조나 순서로 되어 있는지도 고려의 대상으로서 서사시, 역사, 이야기 등은 주로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그 문서가 어떤 문학단위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주목되는데 유사한 자료들을 사용하는 문서들은 유사한 장르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리지는 이런 외적 특징에 인물구성도 포함시키는데 이는 다소 부적합해 보인다. 버리지는 이런 외적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 분명한 형태(pattern)가 드러나게 된다고 믿는다. 넷째로, 내적 특징(internal feature)에는 배경(setting), 모티프, 문체, 어조, 가치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상황이나 저자의 의도 및 목적도 여기 포

---

28) Ibid., 118-9.

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형식이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리지는 이처럼 자신의 방법론을 설명한 후 이제는 그 방법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초기 그리스-로마 βίολι 다섯 편과 후기 그리스-로마 βίολι 다섯 편을 선택해서 자신의 방법론으로 분석을 하고 후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분석한다. 공관복음서에 대한 버리지의 분석 결과를 본다면, 우선 서두 특징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서두에 주인공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βίολι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로 주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당연히 많은 동사의 주체로 예수가 등장하고 있어서 역시 βίολι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지면의 할애에 있어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한 주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버리지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많은 지면 할애는 그리스-로마 βίολι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복음서가 βίολι가 아니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sup>29)</sup> 셋째로, 외적 특징으로 볼 때에 공관복음서는 중편 길이의 서사로서 예수에 집중하고 있고 인물구성이나 자료사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그리스-로마 βίολι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내적 특징에서 특히 저자의 의도나 목적으로 볼 때에, 복음서는 찬양, 범례, 정보 제공, 즐거움, 기억 보존, 교훈, 변증과 논쟁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이러한 목적은 또한 그리스-로마 βίολι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결론짓는다. 요한복음도 같은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결국 모든 복음서는 분명히 그리스-로마 βίολι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29) Ibid., 199.



## 2. 평가 및 전망

버리지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논문들이 그러할 수 있듯이 자신의 전체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나 결론은 복음서를 그리스-로마 βίος로 인정하는 편에 서있는 학자들에게는 확실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루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다른 입장들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볼 때에 그의 논문은 또한 비판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첫째로, 버리지는 처음부터 복음서를 그리스-로마의 배경에 위치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며 자신의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과거의 다양한 장르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유대적 배경에서 복음서 장르를 설정하려는 연구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을 인용해 성급히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sup>30)</sup>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성서 전체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대적인 요소가 대부분이며, 주요 사상들은 구약에서 왔으며, 구약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버리지의 말대로 장르가 외적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러한 유대적인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처음부터 고유의 장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장르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서, 버리지의 견해대로 장르를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독자적인 장르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둘째로, 버리지는 한 중심인물로서 예수를 등장시키고 그에게 집중하

30) Ibid., 19-21.

고 있는 복음서의 성격이 대표적으로 βίολ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복음서 이야기에서 예수가 중심인물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왕국)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행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도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복음서를 정확히 βίολ에 위치시키려면, 이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주체로 등장하는 βίο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버리지의 방법론은 형식과 내용 목적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과로 볼 때는 형식적 유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유사한 문서나 동일한 문서들도 그 삶의 자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이 다른 기능을 한다면 그 형식이 동일하다고 해도 같은 장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잠언이 이집트의 지혜문학과 같은 장르로 분류된다고 해도 그 기능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버리지의 논리의 배후에는 종교사학과와 같은 전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종교나 기독교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당시의 일반 종교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존재했던 하나의 종교처럼 보려는 시도처럼, 문서의 외적 형태가 당시 다른 문서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르의 문서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넷째로, 버리지는 자신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과 비교한다면 그가 그 방법론으로 복음서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 복음서가 그리스-로마 βίολ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다 분명하게 복음서가 다른 장르가 될 수 없고 그 것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버리지는 복음서가 예수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정도나, βίαι와 일반적인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복음서의 장르를 결정하고 있다. 복음서가 그리스-로마의 βίαι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사한 특성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장르의 원래 특성이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덮어 버리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장르가 원래 발전하고 서로 혼합되고 유동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복음서의 장르는 얼마든지 독특하거나 다른 것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버리지는 복음서가 아직 세계화 되지 않은 국지적인 모임과 공동체였던 기독교인들, 즉, 독특한 성격을 가진 독특한 종교의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문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버리지는 복음서가 이러한 독특성보다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섯째로, 버리지는 자신의 책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장르의 기능은 저자와 독자의 기대를 조율하여 올바른 이해에 이르게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장르 설정의 해석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는 자신의 복음서 장르 설정이 어떻게 복음서 해석에 기여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버리지는 복음서를 그리스-로마의 βίαι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훌륭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충분한 연구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계속 진행될 복음서 장르 연구가 보다 충분하며 적절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간략히 제시해

보자. 첫째로, 복음서 장르 설정에는 복음서의 다양한 배경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주로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로마의 배경에서 그 장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독특한 배경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그 기독교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 복음서의 주요 배경이기도 한 유대적 요소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태처는 복음서 장르와 가장 가까운 병행 장르는 교회 자체를 태동시킨 그 동일한 유대적 배경 안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1)</sup> 둘째로, 문서의 외적 또는 형식적 유사점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내용이나 기능 또는 삶의 자리를 중요하게 고려해서 복음서 장르 설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위한 신앙의 책이었던 복음서의 독특한 성격과 기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로, 복음서 장르 설정은 복음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해석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에서 다루겠지만 버리지의 복음서 장르 설정은 결과적으로 복음서의 성격이나 독자 이해 또는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장르 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복음서를 올바른 자리에 위치시켜 독자가 올바른 기대로 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 IV. Βίβλος로서의 복음서와 복음서 독자

앞서 언급했듯이 버리지는 복음서의 장르 설정이 복음서 이해에 중

31) Tom Thatcher, "The Gospel Genre: What Are We After?" 138.

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장르비평을 복음서 이해나 해석을 위한 도구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복음서를 그리스-로마의 βίος로 이해하는 버리지의 견해는 이후에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출발점이 되었다. 1998년 복컴은 자신의 글을 포함해 여러 학자들의 글들을 엮어 책으로 펴냈다.<sup>32)</sup>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 복음서 독자에 대한 재고』(*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라는 그의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복컴과 여러 학자들은 이 책에서 복음서의 독자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닌 전 지역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보려주려고 하였다. 가장 분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진 요한복음도 특정한 요한공동체가 아닌 일반 독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어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복컴의 견해는 신약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sup>33)</sup> 여기서는 주로 βίος로서의 복음서 장르 문제와 관련해서 복음서 독자 또는 공동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Bauckham의 복음서 독자

복컴이 복음서의 독자들은 한 지역의 공동체가 아니라 널리 퍼져있던 모든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우선적인 근거는 복음서가 그리스-로마의 βίος라는 그의 전제에 있는데,<sup>34)</sup> 이것은 즉, 복음서의 장르

32) Richard Bauckham, ed.,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33) Richard Bauckham, "John for Readers of Mark,"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ed.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147-71.

34) Richard Bauckham, "For Whom Were Gospels Written?" 28.

문제에서 그의 복음서 독자론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서가 그리스-로마의 βίολ이라는 것은 복감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당시 헬라세계에서 일반적으로 βίολ이 이해되듯이 복음서도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헬라세계에서 βίολ은 보통 한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의 특별한 상황을 위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음서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전기적인 문서의 성격은 원래부터 그 주인공을 널리 선전하려는 선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나 목적으로 볼 때 그것이 한 지역의 소규모 그룹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sup>35)</sup> 둘째로 복음서는 βίολ로서 바울의 편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학자들이 보통 복음서의 독자로 특정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는 이유는 그것을 바울의 편지처럼 특정 지역의 공동체 또는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인데, 복음서는 분명히 편지가 아니며 저술로서의 βίο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복음서는 저자가 자신 스스로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저자가 독자와 동일한 공동체에 존재했다면 저자는 설교와 같은 구두(口頭)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글이나 책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저자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수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복감은 생각한다.<sup>36)</sup> 셋째로, 복감의 책의 기고자인 러브데이 알렉산더(Loveday

35) Richard A. Burridge, "About People, by People, for People: Gospel Genre and Audiences," 133.

36) Richard Bauckham, "For Whom Were Gospels Written?" 29; Richard A. Burridge, "About People, by People, for People: Gospel Genre and Audiences," 134.

Alexander)는 복음서는 편지가 아닌 당시 βίῳ와 같은 제본된 책(codex)의 형태로 기록되어 읽혀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당시의 다른 책들처럼 개인을 통해 또는 판매상을 통해 쉽게 널리 전파되었을 것이므로 특정한 독자를 위해 기록했다고 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한다.<sup>37)</sup> 이와 같은 세 가지는 모두 복음서의 장르와 관련된 그것으로부터 나온 설명이다. 복음서는 구전이 아닌 책으로 기록된 βίῳ이며, 편지가 아닌 저술로서의 βίῳ라는 장르적 성격으로 볼 때 특정 지역 공동체가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르적 성격 이외에도 복감은 당시의 기독교 운동의 광범위성과 이에 따른 활발한 기독교 공동체의 상호 교류와 지도자들의 빈번한 여행 등에 주목한다.<sup>38)</sup> 당시 기독교는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던 로마세계에 살았고 따라서 교회들 간에도 서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며 바울서신이나 베드로전서와 같은 서신서들도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으로 복감은 이해한다. 또한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도 빈번히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닐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때에 복음서 기록은 어떤 한 지역이나 한 공동체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복감에게 있어서 당시의 복음서는 모두 널리 읽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마가복음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서, 복감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마가복음을 알고 있던 독

37) Loveday Alexander, "Ancient Book Production and the Circulation of the Gospels,"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ed.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71-105.

38) Richard Bauckham, "For Whom Were Gospels Written?" 30-43.

자에게 일종의 마가복음에 대한 보충을 하기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sup>39)</sup> 이처럼 전체적으로 복감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동체를 복음서의 수신자로 이해하고 연구하던 많은 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복음서 해석을 위한 독자 연구를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시 주목할 점은 기본적으로 복감의 이러한 견해는 복음서 장르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평가 및 전망

복감의 복음서 독자에 대한 견해는 복음서가 그리스-로마의 βίολ 장르에 해당한다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버리지의 βίολ로서의 복음서 장르 설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복감은 바로 그 점에서부터 버리지와 동일한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음서가 만일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βίολ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케뤼그마, 증거, 고백, 또는 선포 등과 같은 독특한 형식의 문서라고 한다면 그의 견해는 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감은 우선 버리지의 장르 설정에 대한 분명한 검토와 평가를 제시했어야 했다. 즉, 처음부터 이러한 확고한 전제 하에 그 전제 자체에 대한 우선적인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복감의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알렉산더도 장르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며 과거의 장르에 대한 연구들이 복음서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존재했던 장르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는 마치 마가나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예수 이야기를 부어 만들었던 거푸집을 찾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으며, 그런 식의 장르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장르에 대해 질

39) Richard Bauckham, "John for Readers of Mark," 147-71.



문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sup>40)</sup> 버리지와 복감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처럼 정형화된 거푸집과 같은 장르를 구축해 놓고 그에 맞추어 복음서를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복음서가 βίαι와 유사한 장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리스-로마의 βίαι와 그 성격이나 목적, 독자들의 범위나 성격까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데이빗 심(David C. Sim)은 그리스-로마 전기 작가들은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서 독자들도 동일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복음서 저자들이나 독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장르를 적용하는 것을 지적한다.<sup>41)</sup> 장르가 그 문서의 기능이나 상황을 결정하지 않으며 반대로 그 문서가 사용된 삶의 자리나 특별한 기능이 그 장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음서나 성경의 책들에 대한 당시 일반 문헌들과의 비교 연구는 복음서나 성경의 책들이 어떻게 당시 문학과 유사하거나 그것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성경의 책들이 당시 일반 문헌의 형식이나 자료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나 목적으로 독특하게 그것을 사용하였는지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실제로 기록 당시의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당시의 문법이나 표현법, 수사법 등도 당시 일반 문헌에서의 용법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나 가치가 당시의 문학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언어와 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형태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성경은 완전히 다른 책이 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40) Loveday Alexander, "What Is a Gospel?" 30.

41) David C. Sim,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A Response to Richard Bauckha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84 (2001): 18.

복음서가 그리스-로마 전기의 형식에 가깝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로마 전기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기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복음서 저자들은 미래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아가서 모든 세상이 복음서를 읽기를 “소망”했을 수 있다. 또한 현대의 복음서 공동체 연구는 중대한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복음서가 작은 지역공동체를 위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도 없다. 당시 기독교 교회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복감의 생각은 일부만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서신은 유대주의 교회(또는 교인들)와 이방교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보여주며 실제로 바울교회들은 유대적 교회들과는 독립적인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음서의 공동체는 바울의 교회에 비해서 그것을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유추나 지나친 추정에 의한 공동체의 재구성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복음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견해는 수용하기 힘들다.<sup>42)</sup> 복음서의 독자 문제 자체는 본 연구의 중심이 아니므로 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복감의 복음서 독자론은 그의 부적절한 복음서 장르 이해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음서 장르의 설정은 복음서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보다 개방적이며,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며, 복음서의 독특한 성격과 상황을 염두에 두며 신중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42) 복감의 복음서 독자론에 대한 중요한 반박들에 대해서는 David C. Sim,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A Response to Richard Bauckham,” 9-24를 참조.

## V. 결론

이제까지 본 연구는 현재 복음서 장르 이해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로마 βίαι로서의 복음서 장르에 대한 견해를, 그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인 버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βίαι로서의 장르 설정에 수반되는 복음서의 독자 공동체 문제 또는 복음서 해석의 문제를 복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해 보았다. 우선 본 연구는 복음서 장르에 대한 견해를 각각 그리스-로마, 독자적, 또는 유대적 배경의 세 종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중에 복음서를 그리스-로마 βίαι 장르로 보는 견해를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버리지의 저술을 통해서 본 그의 장르비평을 통해서 몇 가지 비평과 전망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전제를 먼저 설정하고 그 전제에 맞추어 논리를 전개하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장르 설정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다. 이는 복감에게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다. 둘째로, 단지 중심인물이 등장한다는 점과 같은 몇 가지 단순한 요소를 중심으로 복음서 장르를 그리스-로마 βίαι로 설정함으로써 그 비교나 유사점 발견이 충분치 못했다. 셋째로, 버리지는 형식상의 유사성 발견에 치우쳐 복음서 독자적인 내용이나 상황, 기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을 주었다. 이는 복감도 마찬가지이다. 넷째로, 그의 체계화된 방법론 제시에 비해 그가 그 방법론으로 얻는 결과는 괄목할만하지 못했다. 다섯째로, 그는 복음서가 비교적 독자적인 위치에 있던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된 독특한 것일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여섯째로, 그는 복음서 장르 설정이 복음서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의 장르 설정이 복음서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지 못했다. 이러한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된 문제는 복음이 복음서의 성격이나 복음서 독자를 다름으로써 진행시켰지만 복음도 근본적으로 버리지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복음서 장르를 어떤 것으로 설정하거나 분류 하는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복음서 해석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르 분류 자체보다는 복음서를 어떤 장르로 명명하든지 간에 복음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장르 연구는 복음서의 유대적, 헬라적 배경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성격과 내용과 기능의 독특성을 간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독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장르 연구는 복음서 이해와 해석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1. 단행본

권종선. 『신약성서 해석과 비평』.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Alexander, Loveday. "Ancient Book Production and the Circulation of the

Gospels.”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Ed. Richard Bauckham, 71-105.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_\_\_\_\_. “What Is a Gospel?”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Gospels*. Ed. Stephen C. Barton, 13-3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Bauckham, Richard. “For Whom Were Gospels Written?”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Ed. Richard Bauckham, 9-48.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_\_\_\_\_. “John for Readers of Mark.”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Ed. Richard Bauckham, 147-71.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Bultmann, Rudolf.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K. Grobel. London: SCM Press, 1952.

Burridge, Richard A. “bout People, by People, for People: Gospel Genre and Audiences.”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Rethinking the Gospel Audiences*. Ed. Richard Bauckham, 113-45.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_\_\_\_\_.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Stanton, Graham. *The Gospels and Jesu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Vines, Michael E. *The Problem of Markan Genre: The Gospel of Mark and the Jewish Novel*. Academia Biblica, 3.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Wills, Lawrence M. *The Quest of the Historical Gospel: Mark, John, and the Origins of the Gospel Genre*. London: Routledge, 1997.

## 2. 정기간행물

Ascough, Richard S. "Narrative Technique and Generic Designation: Crowd Scenes in Luke-Acts and in Charit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58, no. 1 (1996): 69-81.

Fitzgerald, John. "The Ancient Lives of Aristotle and the Modern Debate about the Genre of the Gospels." *Restorian Quarterly*, vol. 36, no. 4 (1994): 209-21.

Kee, Howard C. "Aretalogy and Gosp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92, no. 3 (1973): 402-22.

Sim, David C. "The Gospel for All Christians? A Response to Richard Bauckha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84 (2001): 3-27.

Smith, Morton. "Prolegomena to a Discussion of Aretalogies, Divine Men, the Gospels, and Jesu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90, no. 2 (1971): 174-99.

Talbert, Charles H. "Once Again: Gospel Genre." *Semeia*, 43 (1988): 53-73.

Thatcher, Tom. "The Gospel Genre: What Are We After?" *Restorian Quarterly*, vol. 36, no. 3 (1994): 129-38.

## 3. 기타

쥘엘 그린 외. 『예수 복음서 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2003.